

한집 건너 커피전문점...살아남기 몸부림

광주·전남 2017년 3630곳 전년비 15% 증가...시장 포화 유명 프랜차이즈도 반값 할인...매출 감소에 초저가 경쟁

광주·전남지역에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관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동네 카페 뿐만 아니라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저가 경쟁'에 들어가면서 '제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역 커피전문점은 총 3630곳(광주 1967곳·전남 1663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3152곳)보다 15.2% 증가한 수치다. 1년 새 광주·전남 지역에 커피전문점 478곳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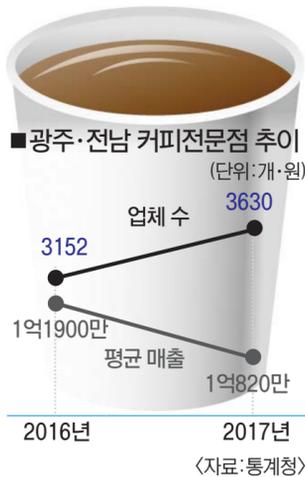
경쟁업체는 많아지는데 이들 커피전문점의 매출 사정은 더 나빠졌다. 광주·전남 업체의 경영실태를 보니 2016년 1억1900만원이었던 평균 연 매출액은 이듬해 1억820만원으로 9.1%(1080만원) 폭 떨어졌

다. 종사자수는 8969명에서 9886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도 609만~659만원으로 8.2% 올랐다.

경영사정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커피전문점은 동네 상권까지 들어와 손해를 무릅쓰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엔제리너스 광주하남점(광산구 우산동)은 최근 48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잔을 2000원에 팔기 시작했다. 이곳 주변에는 스타벅스, 매가커피, 카페그란데 등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몰려있다.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밀집된 상무지구의 중소 프랜차이즈 지점들은 점심시간에만 한시적으로 3000~4000원 대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팔고 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커피전문점들은 '초저가'를 내세운 상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마케팅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업계의 경



쟁이 과열되고 있다. 커피 업계에서는 테이크아웃(take out)용 저렴한 커피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3가 학원가에는 지난해 아메리카노를 한잔에 800원에 파는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가 들어섰다. 또 1ℓ에 달하는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한잔 1800원에 판매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잇따라 생기며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른바 충장로 '콜박스 사거리'에서 음료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30)는 올해 초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홀로 일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이곳 맞은편에는 커피를 900원에 파는 샵이 지난해 들어섰다. 그는 "건물 임차료 300만원, 전기요금·수도요금 50만원 등을 합하면 한 달 지출은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1000원짜리 커피 한잔을 팔아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두만 써야 해서 수익이 500원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코스피 2103.15 (-5.60)	↑ 금리(국고채 3년) 1.48 (+0.01)
↑ 코스닥 726.68 (+2.36)	↑ 환율(USD) 1183.10 (+0.50)



광주 남구에 한국아텔리움 eco 아파트 분양

오늘 쌍촌동에 홍보관 개관

한국건설이 광주시 남구 서동에 한국 아텔리움 eco 아파트를 분양한다. (조감도) 주택홍보관은 14일 서구 쌍촌동에 개관한다. 이 아파트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남구에 짓는 데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20년 만에 6배 상승하는 등 광주 아파트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는 아파트 청약률에서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만 6091가구(임대·뉴스타이 제외)가 일반에 공급, 총 청약자 수는 22만4509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13.95대 1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가 56대 1로 가장 높고 세종이 40.4대 1, 대구가 30.77대 1로 이어진다.

광주 주택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약이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노후 아파트가 많은 측면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남구 서동2지구에 아파트가 공급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아텔리움 eco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서동 60-2번지 일대에 건립된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다. 특히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인 59㎡,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총 315가구 중 1차 204가구, 2차 111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광주시 남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각종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다. 서동과 사동, 월산동 등 인근 재개발이 계획돼 있고 제2순환도로 연장 개통의 영향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됐다. 지하철역이 멀지 않고 필문대로와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교통환경으로도 도심뿐 아니라 시외 어디 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 단지 바로 앞에 대성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고 반경 1km 이내에 무진중학교, 석산고등학교 등 남구 명문학군에 있다.

쇼핑 및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멀지 않고 남구청과 서구청, 아시아문화전당,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매가박스, 홈플러스, 이마트, 충장로, 양동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생태하천인 광주천이 도보거리에 있어 산책과 운동 시설 이용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협 9개 기관 참여 23곳으로 확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남 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수출지원협의회'를 확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14개 기관에 여수시 등 지자체, 여수세관, 산업통상자원부 울진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9개 기관이 새로 참여해 2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협의회는 별도로 '수출솔루션팀'을 구축·운영해 수출 준비단계에서부터 세관 통과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솔루션팀은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코트리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여수·광양 세관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고를 덜고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 참가한 기관들은 오는 10월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 관련 행사에 지역 중소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홍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3일 롯데아웃렛 수완점 야외광장에서 열린 '전남도와 함께하는 남도 직거래 장터'에서 고객들이 전남 농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 농수산물 700여 품목...롯데백화점 '남도 직거래 장터'

16일까지 롯데아웃렛 수완점 산지 직거래로 최대 50% 할인

롯데백화점이 오는 16일까지 나흘 간 롯데아웃렛 수완점 야외광장에서 '남도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주최한다. 전남도가 인증한 20개 사·군 우수 생산자 90명이 참가한다.

이날 장터에서는 곡성멜론, 완도전복, 영광굴비 등 지역 대표 농·수산물 700여가지 품목이 소비자를 만난다. 산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된 무안양파는 1.5kg에 2000원, 해남 황금배추 포기당 600원, 고흥마늘은 반접 1만원에 내놓는다. 곡성 장미축제 인기 먹거리인 '토라파이', '완도전복만두', '진도전빵' 등도 시식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광주지역 상품 기획팀(MD)을 신설한 뒤 '완도 수산물 대전', '담양딸기 기획전', '흑산도 흥어 산지 직송전' 등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신보, 올 2200억원 청장년 창업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전남 관내 5개 보증센터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 경영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 농신보 조영철 상무는 올해 청장년 창업보증 2200억원을 지원,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증 잔액 16조3000억원을 달성해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청장년 창업보증은 창업 5년 이내, 55세 이하의 귀농·귀촌 관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보증보다 보증비용, 보증료 등의 보증조건이 유리하게 적용된다.

전남 관내 보증센터는 지난 5개월 동안 양파, 전복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에게 9500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